

# 영화 못지않은 수작...시청률도 '왕'

tvN '왕이 된 남자' 증명

'광해' 장점 살리고 단점 보완  
여진구 '1인 2역' 연기 호평  
시청률 10.6% 월화극 중 1위

원작 영화와 비교되기는커녕 그 자체로 빼어난 만들새를 뽐낸 드라마였다.

5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야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tvN 월화극 '왕이 된 남자' 최종회 시청률은 10.6%(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총 16부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는 최종회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면서 유종의미를 거뒀다.

'왕이 된 남자'는 1200만명이나 본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2012)의 리메이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원작이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영화여서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반응을 자아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영화의 장점은 그대로 취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매워낸 훌륭한 수작이었다.

드라마는 원작 영화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린 왕과 중전의 사랑은 극의 한복판으로 끌고 와 중요한 이야기 축으로 삼았다.

또 신치수(권해효 분), 대비(장영남), 진평군(이무성) 등 권력을 놓고 다투는 인물들을 대거 추가하거나 뚜렷한 개성을 덧입혀 2시간짜리 영화를 16부작 드라마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면서 명·교체기의 중립교와 대동방이 시행되는 과정은 원작보다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원작의 핵심 메시지인 애민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이규(김성경)가 진짜 왕을 독살하고 광대 하신(여진구)을 왕으로 만드는 이야기 전개는 드라마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는 설정이자 기존 사극에선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전개였다.



그 결과 드라마 '왕이 된 남자'는 원작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그 자체의 독창성을 지닌 작품으로 새로 태어났다.

광해군을 연기했던 이병헌과 달리 가상의 왕을 연기한 여진구는 1인 2역을 훌륭하게 소화하면서 비로소 성인 연기자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다. 몇몇 조연들의 감정선을 세밀하게 그려내지 못한 시청자들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한 점이 그렇다.

극 중 하선에게 돌도 없이 소중한 존재로서 신치수가 문에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여동생 달래가 '민폐' 캐릭터가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희원 PD는 영화

처럼 공들인 미장센과 안방극장에서 보기 힘든 우아한 카메라워크, 모던한 사운드트랙을 적절하게 조합하며 전작 '돈꽃'에 이어 이번 작품에서도 연출력을 증명했다.

'왕이 된 남자' 후속으로는 11일부터 박진영-신예은 주연의 '사이코메트리 그녀석'을 방송한다.

한편, 동시간대 방송된 지상파 월화드라마는 모두 한 자릿수대 시청률을 기록했다. SBS TV '해치'가 4.9%-6.4%로 가장 앞서는 가운데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2'는 4.3%-5.9%, MBC TV '아이템'은 2.6%-3.4%로 나타났다. JTBC '눈이 부시게'는 5.097%(유료가구)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 내달 28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서 SBS '인기가요 슈퍼콘서트'

세계수영 성공 기원...K팝 스타 대거 참여

SBS TV는 다음 달 28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기가요 슈퍼콘서트'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기원'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K팝 스타가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SBS는 지난해 7월 대만 타이베이에서 '슈퍼콘서트'를 열어 국내에서 호응을 얻었으며, 이어 10월에는 수원에서도 개최했다.

광주 콘서트의 1차 라인업은 오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이 행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한다.

/연합뉴스

## KBS 드라마 단골소재 '간' "한 주 내내 '별주부전' 이냐"

주말·미니시리즈·일일극 모두 '간 이식' 다뤄

KBS 드라마는 한 주 내내 '별주부전' 이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1년 전 이맘때 '황금빛 내 인생'의 '상상암 파동'이 연일 화제였는데, 요새는 운동 간(肝) 타령이다. 시청률 46%(닐슨코리야) 벽을 깬 2TV 주말극 '하나뿐인 내편', 20%를 넘긴 2TV 수목극 '왜그래 풍상씨'와 1TV 저녁 일일극 '비켜라 운명아'까지 모두 간 이식을 둘러싼 이야기가 전개되니 이쯤 되면 '간 파동'이라 부를 법하다.

그중에서도 간 이식이 가장 비중 있게, 또 무겁게 다뤄지는 작품은 '왜그래 풍상씨'이다. 철부지 동생 넷을 건사하느라 몸은 물론 마음의 피로까지 상정한 이풍상(유준상 분)은 결국 간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는다. 몸의 해독과 살균 작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간은 웬만큼 아파서는 증세로 나타나지 않아 '침묵의 장기'로도 불린다. 수십 년 동안 오로지 동생들을 위해

피로를 잔뜩 안고 살아온 풍상의 간도 오랜 세월 침묵하다 결국 탈이 났다.

드라마 관계자는 5일 "왜그래 풍상씨'는 간 이야기 통해 가족 간의 갈등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며 "간 찾기는 소재 자체에만 이목이 쏠리지 않도록 가족관계 등 공익적인 메시지로 풀어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풍상씨네 간 파동이 연일 화제가 되자 종영까지 2주를 앞둔 '하나뿐인 내편'도 간 이식 소재를 꺼내 들었다.

최근 이 드라마에서는 간 경화 말기 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장고래(박성훈)에게 가까이 자신의 간을 내어준 강수일(최수종)의 모습이 그려졌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수일에 대한 고래의 미움과 오해를 풀기 위해 극적인 에피소드를 삽입한 의도는 이해한다면 서도 개연성이 급작스러운 전개에 비관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한 방송가 관계자는 "사실 간 이식을



하나뿐인 내편



왜그래 풍상씨

해죽기도, 받아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말 가끔 행운이 따를 뿐인데 요새 드라마 설정을 보면 마치 기준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비쳐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비켜라 운명아'에서는 최시우(강태성)가 급성 간 경변으로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의 라이벌인 양남진(박윤재)이 이식을 절실히 하며 적에서 친구로 거듭나는 중이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용왕님 보우하사(재)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닥터 365 40 강남스캔들
9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봄이 오나 봄(재)	10 SBS 뉴스 20 SBS 생활경제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왜그래 풍상씨(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내 친구 요리리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5 봄이 오나 봄(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야생여정(재)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5 MBC PICK X 호구의 연애(재)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20 공사창립기획 아내운서 전국노래자랑(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꼬마돌도도 2 55 슬물 때 사랑한다(재)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55 5 MBC 뉴스	00 SBS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스페이스 버스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5 경성판타지(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5 생방송 빛날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Q	50 원손잡이 아내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건축물 남도에 살아라! 30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실화탐사대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55 나만의 독림 영웅 <김말렉산드라>			
10	00 시사토론 '10' 55 UHD 쉼터	00 왜그래 풍상씨	00 봄이 오나 봄	00 빅이슈
11	00 오늘밤 김재동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옥탑방의 문제아들	10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1~5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9:00 피피루 안전특공대
06:00 한국기행(재)	12:10 EBS 초대석	19:15 꼬마하이로 슈퍼잭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지식채널e	19:30 EBS 뉴스
07:00 레전드하이어로 삼국전	13: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9:50 메디컬 다큐 - 7요일
07:30 꼬마버스 타요	13:4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20:40 세계테마기행 <극한 겨울 타기3부 겨울에도 찬란한 아나톨리아 고원>
08:00 동등명 유치원1~2	14:30 냉장고 나라, 코코몽	21:30 한국기행 <오지, 봄이 오지 3부 오지의 마법사>
08:30 미니특공대 X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랄랄라 뿌우	15:15 출동! 피자마 삼총사	22:45 극한직업
09:00 엄마 까투리	15: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23:55 EBS 초대석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6:15 출동! 슈퍼원스	24:45 지식채널e
10:30 한국기행(재)	16:30 랄랄라 뿌우(재)	24:50 세계의 눈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우렁 강된장과 봄나물 생채비법>	16:45 동등명 유치원1~2(재)	
	17:15 엄마 까투리	
	17:30 꼬마버스 타요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36년생 제대로 걸려들면 골장 후회한다. 48년생 영접했던 것이 있다면 풀어야만 한다. 60년생 근원을 찾아본다면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72년생 문제점을 무시한다면 냉혹한 현실에 처하게 되리라. 84년생 맹목적인 확신은 소모적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20, 11	午	42년생 숙명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임해야 현명하다. 54년생 분량을 헤아리는 것보다 질을 따져 봄이 상책이로다. 66년생 판단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결과는 장기간 영향을 미치겠다. 78년생 속전속결로 처리하라. 90년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03, 80
丑	37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바리던 일이 꼭 이루어 것이니라. 49년생 해복은 일이 말끔하게 해결되는 단계이다. 61년생 관행만을 앞세우면 남패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73년생 애로 사항이 생길 수다. 85년생 탈은 없을 것이니 험태를 유지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80, 08	未	43년생 스스로 드러나서 쉽게 파악 될 것이니라. 55년생 발전으로 이끄는 새로운 기운이 보인다. 67년생 영겁결에 더불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79년생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리라. 91년생 본능적이라면 위험해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37, 74
寅	38년생 길흉이 혼재하면서 변화무쌍함을 보일 것이다. 50년생 하나 씩 차분하게 정리해 나간다면 순조로워진다. 62년생 영문도 모른 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74년생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인식하면 된다. 86년생 경중은 저울로 달아 봐야 안다. 행운의 숫자 : 14, 25	申	44년생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56년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보인다. 68년생 튀어나오려고 해도 꼭 잡고 있는 것이 옳다. 80년생 바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느니라. 92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94, 67
卯	39년생 실제적이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51년생 조건이 성립 되었을 때에는 다소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자 다 수용하라. 63년생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다. 75년생 합심하여 병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87년생 상대의 안색만 봐도 알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6, 69	酉	45년생 가는 곳마다 반기니 세상 살 맛 날 것이다. 57년생 사리에 밝은 사람의 말에 따르도록 하자. 69년생 시기 조건이 있는 법이니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행하라. 81년생 상대의 눈빛 속에서 많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93년생 과정에 충실하라. 행운의 숫자 : 50, 88
辰	40년생 호기가 주어졌을 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2년생 갈구하여 왔던 바를 이룬다. 64년생 오늘의 지출은 내일의 자본이 된다. 76년생 마음을 터놓고 얘기 해본다면 쉽게 합치하리라. 88년생 자연스러운 만남 속에서 원만한 관계가 형성 된다. 행운의 숫자 : 43, 33	戌	34년생 우연이나 전연의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46년생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지어다. 58년생 시기가 아니라 완성도의 문제이니라. 70년생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간에 평상심을 유지하라. 82년생 생각지 못했던 점이 길한 작용을 한다. 행운의 숫자 : 32, 54
巳	41년생 역발상이 두드러질 것이다. 53년생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풀이 생기느니라. 65년생 마음을 놓은 데서 실수가 비롯되는 법이다. 76년생 조금만 더 진력한다면 성과의 윤곽이 보일 것이다. 89년생 잊고 있었던 것을 연상시켜주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1, 16	亥	35년생 노력과 대비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7년생 의외의 요인에 의한 차질이 보인다. 59년생 한 번 아닌 것은 끝까지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아 하리라. 71년생 변화의 조짐이 예상되니 완벽하게 대처 해야겠다. 83년생 안정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58, 9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사랑! ☎010-9790-8237